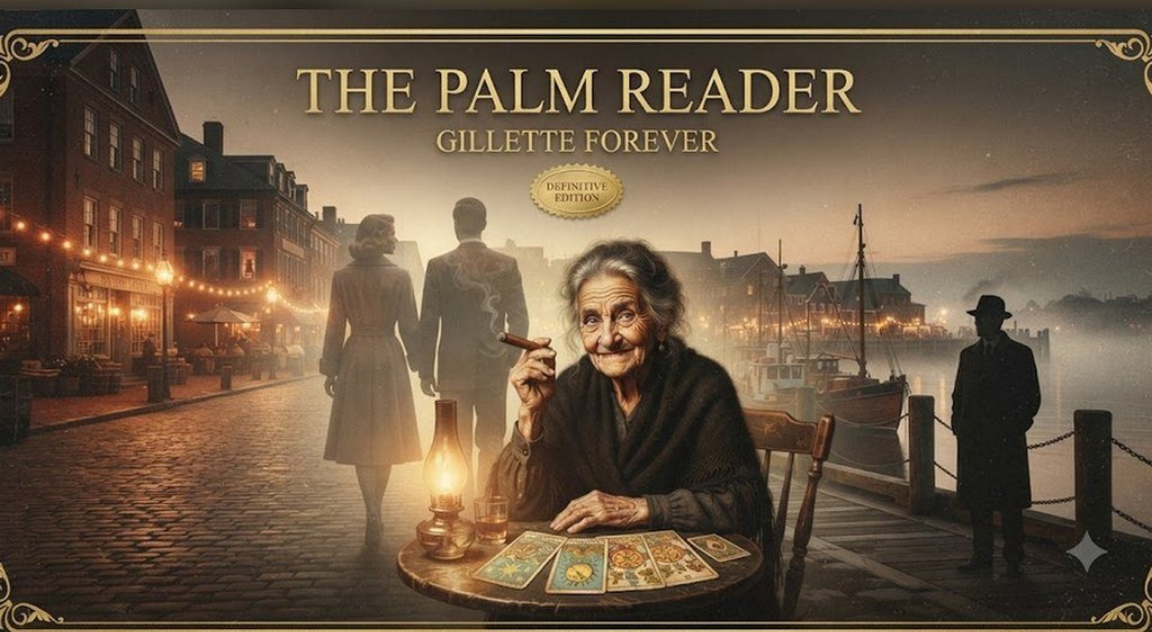


THE PALM READER

GILLETTE FOREVER

DEFINITIVE
EDITION



WALL STREET의 손금 보는 사람

GILLETTE FROM WALL STREET · 09

액자

내 아이들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았다. 웃고 있었지만, 셋 중 누구도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. 아이들은 엄마와 속삭였고, 그 속삭임 속에서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: 엄마,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?

생물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. 브랜드는 능력이라 부르고 사회는 광기라 부르던 그 미친 기질을 자신들도 물려받았느냐는 의미에서였다 — 어디에도 분류해 넣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.

나는 친구 몇 명을 만나러 나의 New York에 돌아가 있었다. 바로 그날 저녁 우리는 보스턴으로 날아갔다,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.

메인 스트리트에서는 늘 가던 식당이 기다리고 있었다: 랍스터와 링귀니. 시칠리아 출신의 두 형제, 그들의 억양은 팔레르모와 매사추세츠가 뒤섞인 것이었다. 마치 『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』 같았다 — 다만 이번에는 내가 사운드트랙을 쓰고 있었다, 나만의 농담으로.

둘 중 한 명이 다음 날 늦은 아침에 만나자고 했다.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. 정오쯤 부두에서 그를 만났다. 그는 내 팔을 붙잡았다: "Frega, 너 마법하고는 어떤 사이야?"

"경우에 따라 다르지. 편집의 마법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. 영업의 마법이라면 지어낼 수 있고. 나머지는 모르겠어."

"아니, 아니. 마녀랑 점쟁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처음은 인도의 인도 사람들이었지. 그다음은 아프리카의 산테리아. 다들 의식으로 악과 싸우는 거야."

그는 잘 알고 있었다. 나는 모르는 척했다. 그는 계속 밀어붙였다:
"내 친구한테 데려가고 싶어, 네 카드를 보게."

"공증인 카드는 집에 두고 왔어. 포커는 끊었고."

그는 웃음을 터뜨렸다: "그 카드 말고. 타로."

"타로라는 거, 시칠리아 오렌지 품종 아니었어?"

"멍청한 소리 하지 마, Frega. 여전히 그 개자식 그대로군. 가자."

걸어서 20분, 네 블록. 우리는 도착했다.

포르투갈 여자, 92세, 불붙인 시가. "젠장, 왔구먼.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. Juliana하고 그 인도 친구가 어제 아침에 여기 왔었지. 둘 다 잔뜩 화가 났어. 당신이 그 빌어먹을 gillettenarrative.com으로 휘젓고 있는 난장판에 휘말렸거든. 당신은 살 수 없어. 팔 수도 없어. 써 버릴 수도 없어."

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. 꿈만 같았다. 친구가 나를 꼬집었다: "여긴 할리우드가 아니야. 여긴 메인 스트리트야."

그녀는 점을 보기 시작했다. 다리를 꼬지 말라고 했다. 진지하라고 했다. 어느 순간, 목소리 하나가 도착했다 — 영혼, 저편에서 온 메아리:

"Frega, 당신이 Gillette 사가 15권에 쓴 게 사실인가?"

나는 웃음을 터뜨렸다. 손금 보는 여자는 낙담해서 말했다: "여기 필요한 건 마법이 아니야. 타로도 아니야. 필요한 건 기도뿐이야."

환영한다.

Ferdinando